



## 미 증시, AI 주 부진에도 금리인하 기대감 지속되며 강세

### 미국 증시 리뷰

9 일(목) 미국 증시는 ARM(-2.3%) 실적 부진에 따른 엔비디아(-1.8%), 마이크론(-1.7%) 등 AI, 반도체주 약세에도, 실업지표 부진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확대시킴에 따라, 달러 약세, 금리 하락 등 양호한 매크로 환경이 조성된 영향에 힘입어 상승 마감(다우 +0.9%, S&P500 +0.5%, 나스닥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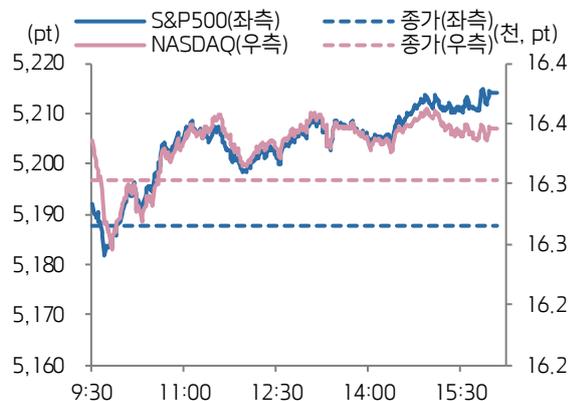
업종별로는 기술(-0.3%)을 제외한 부동산(+2.3%), 유틸리티(+1.5%), 에너지(+1.3%) 등 전업종이 강세. 네덜란드 반도체 설계 업체 ARM(-2.3%)은 1 분기 실적 및 연간 가이드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에 약세. 로블록스(-22.1%)도 분기 실적이 쇼크를 기록한 여파로 급락.

미국의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3.1 만건으로 전주(20.9 만건) 및 컨센(21.2 만건)을 모두 상회하며, 약 9 개월 이래 최고치를 경신. 연속실업수당 청구건수도 178.5 만건으로 전주(176.9 만건)에 비해 증가하는 등 지난 4 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에서 확인된 미국 노동시장의 균열이 이번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에서도 재확인.

영란은행(BOE)은 5 월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 5.25%로 6 회 연속 동결. 지난번 회의에 비해 금리인하를 주장한 소수의견 위원이 기존 1 명에서 2 명으로 증가.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는 경제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최근 인플레이션의 흐름을 보면 2 개월 내로 2% 물가 목표치 근처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강조. 다만,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더 많은 증거를 보기 원한다고 언급.

더불어 민주당 박찬대 원내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며 금융투자를 하고 있는 대부분 시민 입장에서 관련 세금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면, 금융투자세가 일반 금융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나라는 금융 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나 상속, 증여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기에, 여기서 금투세가 없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면 이 문제를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밝힘.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712.14	-1.2%	USD/KRW	1,369.86	+0.41%
코스피 200	368.83	-1.41%	달러 지수	105.23	-0.3%
코스닥	870.15	-0.26%	EUR/USD	1.08	+0.04%
코스닥 150	1,429.88	-0.58%	USD/CNH	7.22	-0.01%
S&P500	5,214.08	+0.51%	USD/JPY	155.33	-0.1%
NASDAQ	16,346.26	+0.27%	채권시장		
다우	39,387.76	+0.85%	국고채 3년	3.450	+1.3bp
VIX	12.69	-2.38%	국고채 10년	3.557	+2.5bp
러셀 2000	2,073.63	+0.9%	미국 국채 2년	4.815	-2.1bp
필라. 반도체	4,759.77	-0.64%	미국 국채 10년	4.453	-4.1bp
다우 운송	15,512.53	+0.59%	미국 국채 30년	4.608	-3.2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5,054.41	+0.32%	WTI	79.62	+0.45%
MSCI 전세계 지수	779.64	+0.38%	브렌트유	83.88	+0.36%
MSCI DM 지수	3,411.11	+0.46%	금	2352.9	+0.54%
MSCI EM 지수	1,063.52	-0.29%	은	28.13	+2.82%
MSCI 한국 ETF	65.10	-1.11%	구리	460.75	+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11%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31%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49%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63.7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6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주 미국 CPI 발표 전까지 매크로 환경은 중립적</li> <li>ARM 가이던스 실망감에 반도체 관련주 하락했으나 하단은 제한</li> <li>개별 기업 실적에 따른 종목 장세 및 수급 비어있는 업종간 순환매 지속</li> </ol>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고용지표 둔화, BOE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인하 가능성 시사 등이 증시에 호재로 작용.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1 만건(예상 21.5 만건), 작년 8 월 이후 최고치 기록. BOE 통화정책회의에서는 9 명 중 7 명이 금리 동결, 2 명은 0.25%p 인하 의견을 내었으며, 인하 의견은 지난 3 월 대비 1 명 증가. 특히 앤드루 베일리 BOE 총재가 “물가상승률이 향후 두 달 내로 2% 목표치 가까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점에서 시장은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해석.

ARM 은 1 분기 실적발표에서 올해 가이던스 매출 38~41 억 달러로 제시하며 시장예상 40.1 억달러에 부합했으나 일부 실망 매물 출회. 빅테크 실적 전후로 반도체, AI 의 추세적인 강세장은 어느정도 마무리되었으며, 반도체주의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엔비디아 실적 전까지 상승 탄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 유지.

9 일(목) 국내증시는 옵션만기일 변동성 확대되며 자동차, 반도체, 은행 업종 차익실현 매물 출회 및 외국인 순매도세에 하락, 전고점 돌파에 실패 (KOSPI -1.20%, KOSDAQ -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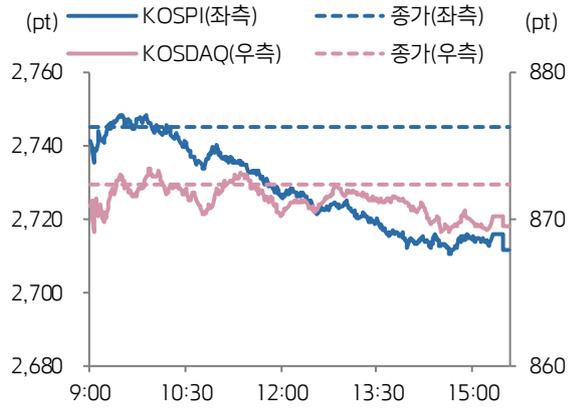
금일에도 시장금리 하락, 고용지표 둔화 등 매크로 환경은 중립적인 가운데 전일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 소외업종 간 순환매로 소폭 강세 예상.

3 월 중순 경 2,750 선 돌파를 견인한 요인은 마이크론 HBM 생산 확대 보도에 따른 신고가 경신, 칩스법 보조금 수혜 기대감. 따라서 전고점 돌파를 위해서는 AI 수요 관련된 강한 모멘텀이 필요.

엔비디아 실적 전까지 기존 주도주이자 밸류에이션 부담 존재하는 반도체, AI 추세적 랠리는 주춤한 상황. 반면, 수급이 비어있는 업종 내 호실적을 발표한 종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지수 하단 지지해줄 것으로 판단. 이런 측면에서 전일 확장품, 미용기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업종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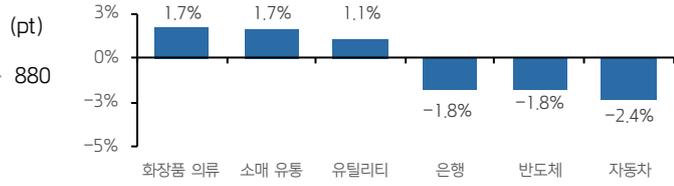
한편 중국 4 월 수출 YOY 1.5% (예상 1.3%, 전월 -7.5%), 수 8.4%(예상 4.7%, 전월 -1.9%)로 예상치 모두 상회하며 중국 증시는 강세. 상반기 중국 선행지표 개선, 최근 SCFI 4 주연속 상승세 및 신고가 경신 등에 중국 증시로의 자금유입 나타남. 금일 발표될 중국 CPI(예상 0.2%, 전월 0.1%), PPI (예상 -2.3%, 전월 -2.8%) 가 예상치 상회할시 중국 관련주 순환매 역시 유효.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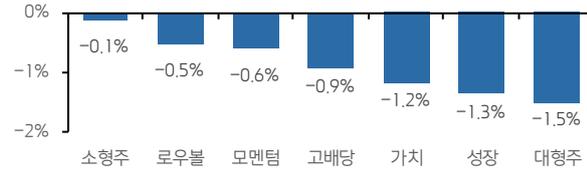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